

결합하는 것, 대비되는 것, 대치하는 것  
- 이지안 작가 <인공자연> 프로젝트 인터뷰 -

전민지



전민지 (이하 전): 작가님께서 2020년에 시작하신 작업 <인공자연>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시장의 한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제목 <인공자연>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과 ‘자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병치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기호로 풀어내자면 ‘인공+자연’으로서의 인공자연도 가능할 것 같고, ‘인공 vs 자연’이나 ‘인공≠자연’도 가능할 듯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안 (이하 이): 2017년 작업 <일상과 환상>에서의 ‘일상’-‘환상’을 비롯해서, 제 작업에는 일종의 ‘쌍’이 존재합니다. 주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매체적 측면에서도 ‘사진’과 ‘입체’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제 작업은 양극단에 놓인 두 개념 사이의 균형을 향해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제목은 <인공자연>이지만, 사실 저는 더욱 넓은 범주 내에서 대조적 레이어를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해 고찰했을 때, 이곳에는 이미 여러 이야기가 누적되었기에 ‘방치’와 ‘번영’이라는 서로 다른 서사가 교차하게 됩니다. 이후 답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에서는 ‘진짜’ 식물과 ‘가짜’ 식물이 한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각 개념은 대립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서로 대치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인공자연> 프로젝트의 현장 선택 과정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공항시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폐허라고 불리게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권이 약화된 건 물론이고, 유령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산한 곳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도된 공항시장 정비사업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폐한 이미지를 지닌 재래시장에서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 혹은 배경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장소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이: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비대면 방식의 예술 실천에 대해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히 강서구 방화동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서구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에 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재개발을 둘러싼 단순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을 알 수 있었죠. 이와 더불어서 강서구의 곳곳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적이 끊긴 공항시장 내 여전히 운영 중인 한 가게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서는 그 건물 옥상으로 저희를 안내해주셨고, 저는 김포공항의 축소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든 공항시장과 그 주변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 눈에 띄는 것은 방치된 옥상에서 기괴하게 자라나고 있는 갖가지 식물들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주변부이자 김포공항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장소라는 점도 특수했지만, 이러한 모습에 낮은 고도의 풍경, 옥상의 기묘한 생태계가 켜켜이 쌓이니 생경함과 익숙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현재의 강서구와 공항시장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 생존 투쟁을 폭넓게 은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러져가는 옥상의 인공물, 그리고 그 폐허를 거름으로 삼아 새롭게 자라난 자연물, 이를 다시 뿌리째 뒤엎으며 단행될 인공적 재개발 공사까지, 저는 여기에서 겹쳐지는 '생성'과 '소멸'의 층위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소의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었고, 공간의 변화와 현장성을 비정기적으로나마 꾸준히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전에 작가님께서 진행해오신 기존 작업과 비교하면, <인공자연> 프로젝트는 직접 개입하시는 부분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진이라는 매체에 집중하시는 건 동일한 느낌이고요. 동시에, 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을 사진 매체로 옮겨내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이던 접근 방식이 재차 간접 개입으로 치환되는 듯합니다. 평면에서 입체로, 그리고 다시 평면으로 향하는 과정이 마치 겹겹의 필터를 거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작가님께서서는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보다도 재현이나 기록을 넘어서는 사진 특유의 이중적 매체성에 초점을 맞춰오시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먼저 해당 가게 사장님께 허락을 받은 뒤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물 사진을 유리, 패브릭, 접착 시트에 인쇄하여 옥상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식물 사진, 그리고 실제 식물과 유사한 형태의 인조 식물이 가건물 외벽이나 전깃줄, 타일 조각 등에 틈입하게 된 거죠. 이러한 개입의 과정에서 저는 옥상을 하나의 세계로 상정하고, 은유적 명칭과 함께 구역을 분류하였습니다. ‘날개집(Flapping Wings House)’, ‘파편의 뜰(Fragments Court)’, ‘흩뿌려진 골목(Spilled Memories)’, ‘야생호박밭(Wild Pumpkin Field)’ 이상 총 네 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는데요, 관람객은 각 공간과 옥상에 설치된 사물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을 수시로 방문하며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물을 추가로 설치해 풍경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사진과 설치를 넘나든 결과는 일련의 매체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연이어 떠오릅니다. 우선 기록으로서의 사진, 조정된 피사체, 요구/요청되는 허구성 등이 있겠네요. 식물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해 풍경을 변주하시는 데 있어 특히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 특정한 순간을 박제한 사진은 물론, 표피에 대한 복제성을 드러내는 인조 식물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식물을 '패러디'한 결과로부터 복제와 모조의 특성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조 식물들은 사진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존재합니다. 즉, 사진의 속성을 빼닮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키치적 조약함 및 영성함을 강조하고자 다양한 인조 식물 중에서도 보다 저렴한 모델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이들은 실제 식물 옆에서 동화와 이화를 반복하며 공존의 여러 면모를 폭넓게 보여줍니다. 이는 프로젝트 제목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인공이면서 자연인 것,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것, 인공과 자연 사이에 있는 것 등으로 해석되는 거죠.

전: 제 경우 작가님의 프로젝트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관련하여 검색을 진행하던 중 구글 지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20-184 상가 <생맥주를 고집하는 집> 옥상' 주소가 '인공자연\_Artificial Nature'로 등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카이빙 과정에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이곳의 풍경은 <인공자연> 인스타그램<sup>1)</sup>에 비정기적으로 축적됩니다. 옥상 구역별 아카이빙 사진 역시 홈페이지<sup>2)</sup>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기록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곳을 지나거나 강서구를 검색하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구글 지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실재하는 공간을 직접 마주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장소와 상황 특성상 <인공자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 옥상은 말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과 장소의 소멸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장소가 끝내 없어지더라도 관객이 조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재개발이 구현하는 결과도 결국 제목처럼 ‘인공자연’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기록으로만 남게 되고요. 결국 소멸은 제 작업의 일부이자 작품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자체가 사라진 이후에도 저는 이곳을 지속해서 기록해나갈 예정입니다.

\* 작가 소개

이지안(b. 1987)은 ‘사진’이라는 물질/비물질로 변이된 과거의 시공간이 현재의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지면서 상황의 일부가 되는 것을 탐구한다. 사진(적 상태)이 외부 상황과 충돌하며 새로운 해석의 회로를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구성 요소가 서로 관계 맺는 과정을 암시한다. 주요 전시로는 개인전 《Just After Christmas》(2019, 공간 291 + 공간 황금향), 단체전 《아마도 우리를 이끄는 것은 단지 불길한 예감일지도 모른다》(2021,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아카이빙 프로젝트 <인공자연>(2020~, 강서구 공항시장역) 등이 있다.

(<https://jianlee.cargo.site>)

- 1) [https://www.instagram.com/artificialnature\\_seoul/](https://www.instagram.com/artificialnature_seoul/)
- 2) <https://jianlee.cargo.site/Artificial-Nature-Thumbnail-pa>